

이달의 교회



서울 나들목
성결의 기수
신광교회



이기용 목사



부임한 지 꼭 5년 되었다. 그간 달라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줄 안다. 우선 성전을 이전, 신축하셨는데 이것이 신광교회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한마디로 신광 공동체의 출애굽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흥과 성장의 전환점이 된 것도 사실이구요. 물론 암사동 후 미진 곳에서 47년의 세월 속에서도 많은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대한민국 5대 물류허브가 될 상일인터체인지 부근에, 그것도 8차선 대로변에 복음의 전진기지를 구축한 것은 큰 축복입니다. 부임 후 ‘새 땅 새 성전 2,000평을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시작한 지 꼭 1년 9개월 만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젊은 목사를 믿고 따라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당이 아름답다고 들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강대상 벽면을 통유리로 하여 바깥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찬양할 때는 커튼을 올려 사계절의 정경 속에서 영적 감동을 이끌고, 설교시간에는 커튼을 내려 말씀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전체적으로 본당 내부를 깨끗하면서도 심플하게 꾸몄습니다. 오가는 길에 한번 구경도 오시지요.”

주변지역이 주택가도 아닌데, 교회성장에 어려움은 없는가?

“성전을 이전할 때, 사실 두 후보지를 놓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한곳은 인근에 약 7천 세대가 들어서게 될 500평의 땅이었구요, 또 한곳은 지금의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주택가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면 과연 전도가 될까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주변 분들도 만류하셨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넓은 땅, 미개척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걱정이 감사로 변하더군요.”

“현재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되고, 인도가 생기고, 버스중앙차선으로 교회 앞에 정류장이 생겼습니다. 좀 멀리 왔는데도 떨어진 가정도 거의 없고, 건축 중에도 매주 새가족들이 등록하는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교인들의 반응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꼭 소풍가는 기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성령님이 행하시면 다 해결된다!’ 는 motto 아래 추진해온 네 가지 중점사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예배입니다. 특히 설교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여, 강대상의 위치에 매이지 않고 역동적인 설교를 하니 성도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둘째는 금요성령집회입니다. 제 목회의 영적 발전소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초신자부터 기존 신자들까지 주님

을 뜨겁게 만나는 가운데 역사가 나타납니다. 셋째는 매일전도(상대방의 개념에 맞춘 전도법을 나름대로 개발함)이구요, 넷째는 제자훈련입니다.”

요즘 집회를 활발히 나가신다. 목사님 집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아직 부끄럽고 부족한 게 많기에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성령께서 강하고 놀랍게 역사(방언, 치유, 재정)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자량으로 비취질까봐 깊히 말씀은 못 드리겠구요, 하여튼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있는 찬양과 기도회를 나름대로 충분히 인도하는 가운데 ‘내가 죽어야 성령이 임하신다.’ 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강조하니 성도들의 신앙에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고 특히 전도헌신자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지난달에는 뉴욕 장석진 목사님 교회에 다녀왔는데요, 목사님께서 만족하셨나 봅니다. 저도 집회를 연장하기는 처음이었고, 또 기업심방까지 부탁하셔서 여행계획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피곤은 했지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집회였습니다.”

이제 11월이면 교회창립 50주년이다. 창립기념사업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아울러 50주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지?

“50주년 기념사업으로는 국내 기념교회 개척과 해외 지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기념음악회와 임직식, 그리고 작은 교회 목회자 및 지역사회 공무원(소방대원, 경찰 등) 섬기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이끄신 하나님, 이곳에서 흠어짐이 아니라 견고함으로, 담보가 아닌 전진으로, 허상이 아닌 실제로 우리 신광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곧 유동인구가 많은 이 서울 나들목에 성결의 기수로 우뚝 서기를 바라시는 것이라 확신하면서, 그날을 향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신광교회 역사

1959년 11월 1일, 한철우 전도사를 중심으로 신성교 인관식 강길복 김인자 현승상 씨 등이 개척하고, 이기성, 김창배 목사 등에 이어 2004년 6월 부임한 이기응 목사에 이르기까지 50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반세기를 은혜의 50년이라 하면 미래의 50년을 희망의 50년으로 삼고, 2006년 3월에 교회부지 1,700평을 매입하고 전원교회를 건축, 새출발을 하였다. 이기응 목사는 교회건축 중에도 선교지원을 늘렸으며, 현재 해외선교 14곳, 국내선교, 15곳, 특수기관 10곳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나는 죽고 오직 성령이 하시게 한다.”는 신앙으로 성령목회를 하고 있으며, 역동적인 주일예배와 설교, 금요성령집회, 그리고 매일전도로 매주 새가족들이 등록하는 은혜 속에서 지속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